

1. 고조선의 중심지 변천을 다음 지도와 같이 추정할 경우, 전기 고조선과 후기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물·유적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점]



- | | |
|--|---|
| <p>[전기 고조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돌널무덤 ② 팽이 토기 ③ 비파형 동검 ④ 잔무늬 거울 ⑤ 탁자식 고인돌 | <p>[후기 고조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무지덧널무덤 미송리식 토기 세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기반식 고인돌 |
|--|---|

정답: ③

* 고조선의 중심지 변천

고조선은 초기에는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점차 인접한 족장 사회를 통합하면서 한반도까지 발전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의 출토 분포로써 알 수 있다(전기 고조선). 이 때의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청동기 시대를 특징짓는 유물의 하나인 비파형 동검과 북방식(탁

자식) 고인돌이 나오는 지역과 깊은 관계가 있다(그 외 미송리식 토기, 거친무늬 청동 거울도 들 수 있다).

그러나 BC 3세기 후반부터 연이 동방으로 진출하면서 고조선은 밀리기 시작하였다. BC 3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연의 장수 진개가 요하 상류에 근거를 둔 동호족을 원정한 다음 고조선 영역내로 쳐들어왔다. 이때 연은 요동지방에 요동군을 설치하고 장새(障塞)를 쌓았다. 그 결과 고조선은 서방 2,000여 리의 땅을 상실하고, 만번한(滿潘汗)을 경계로 연과 대치하였다. 이 무렵 고조선은 그 중심지를 요하 유역 쪽에서 평양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여겨진다(후기 고조선).

후기 고조선 시대 이르러 청동기 문화도 더욱 발달하여 한반도 안에서 독자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청동기 시대 후반 이후, 비파형동검은 한국식 동검인 세형 동검으로, 거친무늬 거울은 잔무늬 거울로 그 형태가 변하여 갔다. 그리고 청동 제품을 제작하던 틀인 거푸집도 전국의 여러 유적에서 발견되고 있다.

① 돌널 무덤은 청동기 시대부터 존재하지만 돌무지덧널무덤은 신라 초기의 무덤 양식이다.

② **팽이형 토기**(청동기 3회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2급 2번 해설 시대 민무늬토기 형식의 하나, 청천강~대동강 사이의 한반도 서북 지역에서 널리 쓰임)와 **미송리식 토기**(청천강 이북)는 전기 고조선의 시대에 해당.

⑤ 기반식 고인돌(주로 한강 이남에 분포하여 남방식 고인돌이라고도 한다)은 고조선 지역과는 관련이 없다.

2. 다음 고구려 고분 벽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점]



- ① (가)에는 고구려인의 생활 모습이 그려져 있다.
- ② (나)에는 윤희 전생을 회구하는 불교적 내세관이 반영되었다.
- ③ (다)에는 중국적 오행 사상과 도교적 우주관이 반영되었다.
- ④ 고구려 고분 벽화의 주된 내용은 (가) → (나) → (다)의 순서로 변화하였다.
- ⑤ (가), (나), (다) 모두 돌무지덧널무덤의 내부에 그려져 있다.

(가) 황해도 안악 3호분 중 고구려 귀족 저택의 주방(생활 모습)

(나) 평남 강서대묘 사신도 중 현무도(도교 사상)

(다) 중국 길림성 집안현 장천 1호분 중 예불도(禮佛圖)

고구려 고분 벽화는 초기에는 묘주의 초상화를 중심으로 행렬도·배례도 등 그의 생전의 생활상을 주제로 한 그림이 많이 그려졌다. 4세기 후반의 안악 3호분, 5세기 초의 덕흥리 고분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서, 여기에는 사후에도 생전에서와 같은 부귀와 영화를 계속 누리기를 염원하는 계세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한편 5세기 이후 고구려 지배층에 불교가 파급됨에 따라서 불교적 내세관이 벽화에도 나타났는데,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연화화생도나 예불도가 인물풍속도와 함께 그려지거나 아예 인물풍속도 없이 연꽃무늬만이 사방에 그려지기도 하였다. 5세기 전반의 무용총, 5세기 중엽의 장천 1호분, 산연화총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어 6세기 이후에는 도교사상의 확산으로 청룡·백호·주작·현무가 그려진 사신도가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고구려가 멸망하는 7세기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평남 강서대묘, 평남 중화군 진파리 1호분, 지안 사신총을 비롯한 많은 고구려 후기의 봉토무덤이 사신도를 벽화의 주제로 하였다.

⑤ 벽화는 주로 굴식돌방무덤에 있다. 돌무지덧널무덤은 신라 초기의 무덤이고 공간이 없어 벽화를 그릴 수 없다.

정답: ①

* 고구려 고분 벽화

3. 다음 교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이제부터 만약 종친으로서 같은 성씨에 장가드는 자는 황제의 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처리할 것이니, 마땅히 여러 대에 걸쳐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취하여 부인으로 삼을 것이며, 재상의 아들은 왕족의 딸과 혼인함을 허락할 것이다.
... 경주 김씨, 경원 이씨, 철원 최씨, 해주 최씨, 공암 허씨,
... 파평 윤씨, 평양 조씨는 여러 대의 공신이요 재상의 종족이니, 가히 대대로 혼인하여 아들은 종실의 여자에게 장가를 들고 딸은 비로 삼을 만하다.

<고려사>

< 보기 >

ㄱ. 당시까지도 왕실에서는 동성혼이 행해지고 있었다.
ㄴ. 고려 전기 이래의 문벌 귀족 가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ㄷ. 혼인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권문세족으로 불리는 가문이었다.
ㄹ. 개경 환도 이후 신흥 세력으로 등장한 집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④

* 고려 후기 권문세족

제시된 자료는 고려 후기 충선왕의 권문세족에 대한 교지에 대한 것이다.

권문세족: 고려 시대의 문벌 귀족 가문, 무신 정권기에 새로 등장한 가문, 원과의 관계를 통하여 성장한 가문 등을 말한다.

13세기 고려 원 내정 간섭기에 성장한 지배층으로써, 몽고 침략에 협력하였거나 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측근 세력이나 이전부터 권세를 누려왔던 문무 관리 집안과 혼인을 맺음으로써, 고려 후기의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가문이다.

크게 고려 전기부터 있던 문벌 귀족 일부와 무신 집권기에 성장한 가문, 그리고 몽골어 통역관으로 출세하는 등 몽골과의 친선 관계를 통해 새로 등장한 가문으로 구성되었다.

권문세족은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아 농장을 경영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어 농장을 경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수가 적어지고 조세를 내야할 백성이 줄어 국가의 조세 수입도 감소하여 나라의 재정이 매우 궁핍하게 하였다

㉠ 보기의 내용과 같이 고려 시대에는 왕실 등에서와 같이 동성(同姓) 간의 혼인이 존재하였다.

㉡ 보기의 자료에 나오는 경주 김씨, 경원 이씨, 해주 최씨 등은 대표적인 고려 전기 문벌 귀족 가문이다.

㉢ 개경 환도(1270)란 원의 간섭기가 시작됨을 말하며 이때 성장한 신흥 세력은 당연히 권문세족이다

4. 다음은 부여 송국리 유적에 관한 자료이다. 이 유적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3 점]

- 기원전 5~4세기의 유적으로 해발 30m 안팎의 낮은 언덕 위에 자리잡고 있다.
- 우리 나라 최대의 청동기 시대 유적으로 그 넓이는 수만 평에 달한다. 현재까지 60여 개의 집터와 돌널무덤, 독무덤 등 10여 개의 무덤이 확인되었다.
- 집터에서 돌낫, 반달 돌칼, 흙자귀 등의 도구와 청동 도구 거푸집, 다량의 탄화미, 붉은 간토기와 특색 있는 '송국리식' 토기 등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 돌널무덤에서 비파형 동검과 굽은옥 등이 출토되었다. 이 무덤은 여러 장의 판석으로 널을 만들고 뚜껑돌은 한 장의 큰 돌로 덮었다.

- ① 만주의 요령 지방에서 주로 사용되던 비파형 동검이 한반도에서도 사용되었다.
- ② 이 시대에 농업이 성행하고 사람들은 돌로 만든 농기구를 이용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 ③ 어린이를 매장한 독무덤은 '송국리식 토기'보다 붉은 간토기를 주로 활용하였다.
- ④ '송국리형 집터'에는 바다 중앙에 타원형 구멍이를 파고 그 양쪽 끝에 2개의 기둥을 세웠다.
- ⑤ '송국리형 집터'는 우리 나라의 서남부와 동남부 및 일본 지역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답: ③

* 충남 부여 송국리 유적(청동기)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에 있는 청동기 시대의 돌널무덤과 독무덤 유적.

여기에서 비파형동검이 출토되었다. 비파형동검은 요녕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어 요녕식동검이라고도 불리는데, 한반도의 중부에서 요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청동기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돌널무덤 역시 집자리 유적과 비슷한 시기인 BC 5~4세기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독무덤은 돌널보다 약간 큰 크기의 구덩이를 상하 2단으로 파서 돌널을 세워 묻은 뒤 뚜껑돌을 덮었다.

돌널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아가리가 좁아지다가 살짝 밖으로 접히는 '송국리형 토기'를 이용하였는데, 집터 근처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독 바닥에 구멍을 뚫은 것이 특징인데, 주로 대롱옥이 함께 묻혀 있었다. 독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보아 어린이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독무덤이 만들어진 시기는, 집자리 유적이나 돌널무덤과 비슷한 BC 5~4세기로 추정된다. 이곳의 돌널무덤과 독무덤은 '송국리형 토기'로 특징지워지는 송국리형 문화의 한 부분을 이룬다

평면 원형으로 내부 중앙에 타원형의 작업공을 설치하고, 그 양단에 기둥구멍[柱孔]을 판 것이 전형적인 송국리형 집터이다

송국리형 집터는 충남, 전남.북의 한반도 서북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규슈 지역까지도 볼 수 있다.

② 청동기·철기 시대에는 이전부터 주요한 생산 도구로 사용 되던 간석기가 매우 다양해지고 기능도 개선되어 생산 경제도 좀더 발달하였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돌도끼나 흙자귀, 팽이, 그리고 나무로 만든 농기구로 땅을 개간하여 곡식을 심고, 가을에는 반달돌칼로 이삭을 잘라 추수하는 등 농경을 더욱 발전시켰다

5. 다음 자료에서 언급하는 경제적 현상이 나타났던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면? [2 점]

숙종 6년, 이 해에 은병을 만들어 화폐로 썼는데, 은 한 근으로 만들되 우리 나라 지형을 본뒀다. 민간에서는 활구라 불렀다.
(고려사)

- 958 : 과거 제도 실시 (가)
- 996 : 건원중보 주조 (나)
- 1019 : 귀주 대첩 (다)
- 1126 : 이자겸의 난 (라)
- 1170 : 무신정변 (마)
- 1236 : 팔만대장경 조판 시작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③

* 고려의 화폐 은병(활구)을 주조한 숙종 시대(1095~1105)

문종과 인예 왕후 이씨의 아들로 순종과 선종의 동복아우이다.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의 세조와 비슷한 점이 많다. 불교를 신봉하여 많은 불회(佛會)를 열었으며, 평양에 기자(箕子)의 무덤을 만들고 묘사(廟祠)를 세웠다.

재위 중 주요 특징으로는 화폐의 유통을 활발히 하기 위해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 동전과 활구(은병, 1101)라는 은전을 만들었으나, 널리 유통되지 못하였다. 윤관 장군이 여진 정벌을 위해 별무반을 창설한 것이 있다(1104)

6. 다음은 통일 신라의 토지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점]

- 신문왕 7년(687) 5월에 문무 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다.
- 신문왕 9년(689) 1월에 내·외관의 녹읍을 혁파하고 매년 조(租)를 주되 차등이 있게 하여, 이로써 영원한 법식을 삼았다.
- 성덕왕 21년(722) 8월에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 경덕왕 16년(757) 3월에 여러 내·외관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나누어 주었다.
- 소성왕 원년(799) 3월에 청주 거노현으로 국학생 녹읍을 삼았다.

〈삼국사기〉

- ① 관료전과 정전을 지급한 것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 ② 신문왕 7년에 지급된 문무 관료전은 조·용·조의 수취가 가능한 토지였다.
- ③ 소성왕 원년의 조치는 국학생들의 경제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④ 경덕왕 16년 녹읍 제도의 부활은 귀족 세력의 권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 ⑤ 성덕왕 21년에 지급된 정전은 신라 민정 문서의 연수유전답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 신라의 토지 제도 변천

본래 신라는 귀족 관료들에게 녹읍(토지+농민=조.용.조=조세.역.공납)을 지급하였으나, 통일 직후 전제 왕권이 확립되면서 녹읍을 폐지하고 대신 관료전을 지급하였으며(신문왕),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성덕왕).

그러나 신라 귀족들의 반발로 말미암아 녹읍이 다시 부활되었다(경덕왕)

① 귀족들의 농민들에 대한 포괄적 지배(토지+농민=조.용.조=조세.역.공납)를 갖는 녹읍을 폐지하고 수조권만 갖는 관료전을 주는 것과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정전)함은 귀족을 누르고 농민을 직접 지배하기 위한 왕권 강화책의 일환이다

② 관료전은 농민들에 대한 포괄적 지배(토지+농민=조.용.조=조세.역.공납)를 없애고 수조권만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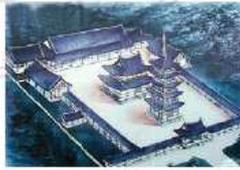
③ 국학생에 대한 녹읍은 당연히 국학생의 경제적 기반이 된다.

④ 폐지되었던 귀족들의 특권적 토지 제도가 부활한 것은 왕권의 약화와 상대적으로 왕권이 약화됨을 보여준다.

⑤ 농민에 대한 토지는 신라 민정문서에 연수유전(烟受有田)과 연수유답(烟受有畓)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난다. 이는 '민호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아 가지고 있는 전답'이라는 뜻으로 722년(성덕왕 21) 8월 백성에게 지급하였다는 정전(丁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7.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3 점]

(가)



부여 능산리 절터 복원도

(나)



백제 금동대향로

(다)



백제창왕영석조사리감

- ① 부여 능산리의 백제 절터인 (가)에서 (나)와 (다)의 문화재가 출토되었다.
- ② (나)는 백제의 완숙한 주조 기술과 정직한 도금 기술이 이루어 낸 걸작품이다.
- ③ (나)에는 도교와 불교 사상이 융합되어 있으며, 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④ (다)에는 백제 창왕(위덕왕) 13년에 공주가 사리를 공양했다는 글이 새겨져 있다.
- ⑤ (다)를 통하여 부여 능산리 절은 창왕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하여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 백제 사비(부여) 능산리 사지(寺址) 유적

(가) 567년에 백제 위덕왕(창왕)이 부왕(父王)인 성왕을 위해 건립한 국찰지(國刹址)로 전해지는 절터의 건물지이다

(나) 1993년 이 절터의 서쪽 한 구덩이에서 국보 제 287호로 지정된 부여능산리출토백제금동대향로(扶餘陵山里出土百濟金銅大香爐)가 출토되어 백제의 높은 금속공예 기술이 널리 알려졌다.

이 향로는 전체적으로는 용이 떠받치고 있는 연꽃 모양의 몸체와 봉황이 올라서 있는 봉래산 모양의 뚜껑으로 크게 구분된다. 즉 용이 입에 문 연꽃 위에 솟아난 봉래산 꼭대기에 봉황 한 마리가 날개를 활짝 편 모습이다

봉래산으로 표현된 신선사상(도교)과 만물이 연꽃에서 탄생한다는 불교의 연화화생관(蓮花化生觀)을 근저에 깔고 있는 작품이다.

(다) 이 능산리 절터의 중앙부 목탑 자리에서 출토된 백제 때 사리를 보관한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百濟昌王銘石造舍利龕:국보 288호)에는 20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어 사리를 봉안한 연대와 공양자가 분명하고 사찰의 창건 연대가 백제 때인 567년(위덕왕 14)으로 밝혀졌다.

④ 창왕(시호: 위덕왕) 13년(567)에 그의 여동생이자 선왕(성왕)의 딸인 여동생이 사리를 공양한다는 내용이 명문으로 적혀있다.

8. 다음 두 자료는 고구려의 대중국 항쟁 과정에서 벌어진 전투와 관련된 것이다. 두 자료와 공통적으로 관련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을 지도에서 고르면? [1점]

- 6세기 말 중국의 남북조 시대가 수의 등장으로 통일되면서 고구려에 매우 불리한 국제 정세가 조성되었다. 수의 문제와 양제는 잇달아 백만 명이 넘는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에 침입해 왔다. 고구려는 병력 규모가 작았으나, 요하를 굳게 지켜 문제의 침략을 막아 냈고, 유인 전술로 을지문덕 장군이 결정적 전투에서 대승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 신묘한 계획은 천문을 꿰뚫었고
기묘한 계획은 지리를 통달하였구나.
싸움마다 이겨 공이 이미 높았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둬야 어찌리.

〈삼국사기〉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②

* 고.수 전쟁 중 살수 대첩(612)

• 첫 번째 자료는 고.수 전쟁의 전반적인 개요이고, 두 번째 자료는 살수 대첩 당시 을지문덕 장군의 ‘여수장우중문’이라는 시이다. 살수는 오늘날 (나) 지역(청천강 유역)이다.

• 612년에 수 양제는 직접 113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요동성을 포위, 공격하는 데 실패하고 바다를 건너 평양성 부근까지 침략한 수군 또한 참패하자, 초조해진 수 양제는 30만 명의 별동대를 투입하여 평양성을 치게 하였다.

우중문 등이 거느린 별동대는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의 유도 작전에 말려들어 평양성 부근까지 진군하였다가 크게 지치고 굶주려 결국 후퇴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이 틈을 타서, 적군이 살수를 건널 때 그 주력 부대를 공격하여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별동대 30만 명 중에서 살아서 돌아간 사람은 겨우 2700명 정도였다고 한다. 이 싸움이 유명한 살수 대첩이다(612).

- ① (가)는 요동 지방의 중심지인 요동성(요양)
- ③ (다)는 고구려 천리장성의 남단인 비사성(따렌)
- ④ (라)는 금강 하구인 기벌포(나.당 전쟁의 최후의 결전지)
- ⑤ (마)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 사비성(부여)

9. 다음의 내용과 관련하여 나타난 정치상의 변화로 볼 수 없는 것은? [1 점]

진덕왕이 돌아가매 못 신하들이 이찬 알천에게 섭정을 청하였다. 알천은 짐짓 사양하되 “나는 늙고 이렇다 할 만한 덕행도 없다. 지금 덕망이 높기는 춘추공만 한 이가 없으니 실로 계세(濟世)의 영웅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군신이 드디어 춘추를 추대하여 왕을 삼으니 춘추는 재삼 사양하다가 마지못하여 왕위에 올랐다.

〈삼국사기〉

- ① 집사부 시랑직에 6두품 세력이 진출하게 되었다.
- ② 김춘추가 왕위에 오름으로써 진골 출신이 왕이 되었다.
- ③ 국왕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상대등의 세력이 확대되었다.
- ④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 ⑤ 성골 출신의 진덕왕이 죽음으로써 성골 골품이 소멸하였다.

정답: ③

* 신라 무열왕의 즉위와 중대(전제 왕권)의 시작

마지막 성골 출신의 진덕(여)왕이 죽자 무열왕(김춘추)은 최초의 진골 출신 왕으로, 통일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이 때부터 태종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왕위를 세습하였다.

나아가, 왕명을 받들고 기밀 사무를 관장하는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의 기능을 강화하고, 귀족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던 상대등의 세력을 억제하였다.

이로써 통일 이후 진골 귀족 세력이 약화되고 왕권이 전제화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① 시랑은 모두 각 부의 차관이며 관계로는 11관위인 나마로부터 6관위인 아찬까지 5두품과 6두품의 신분층이 맡을 수 있는 벼슬이다. 신라 중대에 6두품의 정치적 진출이 활발하였고 중위제의 일시적 예외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올라가봐야 6등급까지이므로(장관은 5등급 이상)은 시랑직 정도에 한도이다.

③ 국왕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것은 6두품 세력이고 이들은 주로 집사부(행정부)에서 활동하고 귀족 세력의 대표인 상대등은 약화되었다

⑤ 성골 출신이지만 여왕으로서 후사가 없는 진덕여왕이 죽음으로써 성골은 소멸하고 이후 진골 출신이(엄밀히 말하면 무열왕계) 왕위를 독점 세습하게 되었다

10. 다음 자료에 반영된 의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점]

우리 태조께서는 즉위한 후에 아직 김부가 복종하지 않고 견훤이 포로가 되기 전인데도, 자주 서도(西都)에 행차하여 친히 북방의 변두리 땅을 순수하였습니다. 그 뜻이 옛 땅을 ... 반드시 석권하여 이를 차지하려 하였으니.....

〈고려사〉

- ① 국호를 '고려(高麗)'라 정한 배경과 관련이 있다.
- ② '만부교' 사건은 위와 같은 인식에서 발생하였다.
- ③ 여진 세력의 성장을 막기 위한 대외 정책의 지침이다.
- ④ 고려의 삼경(三京) 제도 마련에 영향을 끼친 요소였다.
- ⑤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정답: ③

* 고려 태조의 북진 정책

태조는 건국(918) 직후부터 북방 진출을 꾀하여 북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나라 이름도 옛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으로 고려라 하였다. 태조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서경(평양)을 중시하여 이 곳을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았다. 태조는 이곳에 자주 들러서 북방 지역을 순시하고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또, 고구려의 영토를 차지한 거란을 무도한 나라로 여기고 적대시하였다(만부교 사건). 이러한 북진 정책의 결과로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당시 발해를 멸망시킨 북방 민족인 거란족(요)과의 충돌은 불가피하였다

② 만부교 사건(942): 태조 때에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요)이 낙타 50필을 보내자 사신은 섬으로 유배보내고 낙타는 만부교(萬夫橋)에서 굶겨 죽인 사건인데. 이는 북진 정책의 의지로 볼 수 있다.

③ 태조 때에는 위협이 되는 북방 민족은 거란족(요)이다. 여진은 동북 9성 반환(1109) 이후부터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④ 고려의 3경(京)은 개경(개성), 서경(평양), 동경(경주, 후일 남경:서울)인데, 서경은 분사 제도(중앙 기구의 분소)를 통해서 제 2의 도읍지 역할을 초기부터 담당하였다

⑤ 신라 통일 직후의 대동강에서 원산만 국경보다 조금 더 북쪽으로 확장한 것은 북진의 결과이다.

11. 다음 글의 밑줄 친 ㉠~㉣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점]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 아래에 자주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였다. 이에, ㉠환인이 천부인 세 개를 주어 내려가게 하니, 환웅은 무리 삼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환웅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였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았는데, 늘 환웅에게 사람 되기를 빌었다. 곰은 삼칠일 동안 몸을 삼가여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그렇지 못하여 사람의 몸을 얻지 못하였다. ㉢환웅이 임시로 변하여 용녀와 결혼하였다. 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단군은 ㉤(堯) 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일컬었다.

〈삼국유사〉

- ① ㉠-천손족(天孫族) 관념에 바탕을 둔 고조선 지배층의 선민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 ② ㉡-생산 활동에서 농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 ③ ㉢-토착 부족과의 연맹을 통해 초기 국가가 형성되는 모습을 암시한다.
- ④ ㉣-정치적 군장의 권위가 제사장을 뛰어넘어 제정 분리 사회로 진입했음을 보여 준다.
- ⑤ ㉤-우리가 중국과 대등할 정도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다.

정답: ④

* 단군 신화와 고조선 건국의 의미

단군 신화는 청동기 시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 고조선의 성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 때, 환웅 부족은 태백산의 신시를 중심으로 세력을 이루었고, 이들은 하늘의 자손임을 내세워 자기 부족의 우월성을 과시하

였다. 또, 풍백, 우사, 운사를 두어 바람, 비, 구름 등 농경에 관계되는 것을 주관하게 하였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주로 구릉 지대에 거주하면서 농경 생활을 하였다. 사유 재산의 성립과 계급의 분화에 따라 지배 계급은 농사와 형벌 등 사회 생활을 주도하였다. 이는 신석기 시대 말기에서 청동기 시대로 발전하는 시기에 계급의 분화와 함께 지배자가 등장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 질서가 성립되는 과정을 잘 보여 준다. 이 시기에 등장한 새로운 지배층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통치 이념을 내세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였다.

환웅 부족은 주위의 다른 부족을 통합하고 지배해 갔다. 곰을 숭배하는 부족은 환웅 부족과 연합하여 고조선을 형성하였으나,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은 연합에서 배제되었다.

단군은 제정 일치(祭政一致)의 지배자로, 고조선의 성장과 더불어 주변의 부족을 통합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조상을 하늘에 연결시켰다(천손 의식).

② 풍백(바람), 우사(비), 운사(구름)은 농경과 관련된 자연 조건이므로 농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③ 환웅(천손족: 수준높은 외래 문화 민족)이 토착 민족인 곰 토렘족(토착 민족)이 결합하여 고조선 국가 탄생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⑤ 중국의 고대의 성군 삼황오제 중 하나인 요임금과 비슷한 시대임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중국과 대등하고 유구한 역사의 민족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12. 다음은 어느 학생이 고적 답사 후에 감상을 기록한 글이다. 그가 답사한 탑을 고르면? [1점]

기단은 각 면의 모서리와 모서리에 기둥들을 끼워 놓았고 탑신부의 각 층 모서리마다 기둥을 세워 놓았는데, 탑신부는 목조 건물의 배흘림 기법을 이용하였다. 얇고 넓은 지붕들은 처마의 네 귀퉁이마다 부드럽게 들려져 있어 단아한 자태를 보여 주고 있다. 이 탑에는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한 기념탑'이라는 뜻의 글귀를 새겨 놓아 한때 '평제탑'이라 불리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고 한다.



정답: ①

* 백제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

좁고 얇은 단층 기단, 사각형 우주(隅柱)에 보이는 엔타시스의 수법, 얇고 넓은 각층 옥개석의 형태, 옥개석 각 전각에 나타난 반전(反轉) 등이 목조탑과(木造塔婆)의 구조와 비슷하며, 또한 이런 점이 특징이다.

제 1탑신 4면에는 당나라의 장군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한 후에 새긴 기공문(紀功文)이 있어 속칭 '평제탑(平濟塔)'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하였다.

각부에서 보여주는 특이한 양식은 한국 석탑 양식의 계보를 정립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세부 수법은 맹목적인 목조양식의 모방에서 탈피한 정돈된 형태의 세련되고 창의적인 조형이며, 전체가 장중하고 명쾌하여 격조 높은 기품을 풍겨 후세에 모방품이 많이 나왔다.

- ② 감은사지 3층 석탑(통일신라)
- ③ 다보탑(통일신라)
- ④ 보현사 8각 13층 석탑(고려)
- ⑤ 분황사 모전 석탑(신라)

13. 다음 자료와 관련된 고려 시대 상속의 일반적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2 점]

어머니가 일찍이 재산을 나누어 줄 때 나익희에게는 따로 노비 40구를 남겨 주었다. 나익희는 “제가 6남매 중에 외아들이라고 해서 어찌 사소한 것을 더 차지하여 여러 자녀들과 화목하게 살게 하려 한 어머니의 거룩한 뜻을 더럽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자, 어머니가 옳게 여기고 그 말을 따랐다.
〈고려사〉

- ① 재산은 남녀 차별 없이 균등하게 상속하였다.
- ② 상속자는 피상속자에게 별도로 상속할 수 있었다.
- ③ 전토와 마찬가지로 노비도 상속되는 중요한 재산이었다.
- ④ 적장자는 다른 자녀에 비해 2배 가량을 추가로 상속받았다.
- ⑤ 토지와 노비의 상속은 상속자와 피상속자가 참여하여 문계(文契)를 작성하였다.

정답: ④

* 고려 시대 상속제도

고려 시대 상속 대상인 전토, 노비 그 밖의 가산들 중에서 노비의 경우는 균분상속이었다는 것이 정설이고 그 밖의 다른 가산들도 균분 상속이었다는 것이 보통의 의견이다.

그러나 전토의 경우는 그 종류에 따라 그 양태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민전의 경우는 균분 상속이 일반적이었으나 공신전의 경우 부계 후손에만 국한된다는 설도 있었으나 전정의 연립에도 외손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음전의 상속에도 사위가 들어간 사료와 실증 자료들로 보아 공신전의 상속이 부계 후손 만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었다.

즉 고려 시대 민전을 비롯한 사유재산의 상속은 자녀간의 균분 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민전과 달리 수조권을 갖는 전정의 상속은 국가적 제도와 결합된 의무나 규제들이 수반됨으로써 민전 상속과는 달랐지만 그 기초가 된 친족관계는 공통적인 것이었다

- ① 모든 재산은 남녀 균등상속이 원칙
- ② 자료를 볼 때 따로 상속분을 줌을 알 수 있다
- ③ 노비도 전토와 함께 주요 재산이다
- ④ 적장자가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음은 조선 후기(17세기) 이후이다.
- ⑤ ‘문계(文契)’ (요즘으로 말하면 유언장 같은 것)를 통해 특별히 상속에 대한 것을 유언으로 남기기 전에는 균등상속이 원칙이었다.

14. 다음의 밑줄 친 취지에 해당하는 고려의 정치 기구를 바르게 묶은 것은? [2 점]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방의 풍습은 각기 그 지방의 특성을 따르는 것이니, 다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예악(禮樂), 시서(詩書)의 가르침과 군신, 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의 것을 모범으로 하여 비루함을 고쳐야 되겠지만, 그 밖의 거마(車馬)와 의복 제도는 가히 우리의 풍속에 따라 사치함과 검소함을 알맞게 할 것이지, 구태여 중국의 제도와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려사절요〉

- ① 추밀원, 삼사
- ② 3성 6부, 어사대
- ③ 도병마사, 중추원
- ④ 식목도감, 성균관
- ⑤ 도병마사, 식목도감

정답: ⑤

* 고려의 독창적 정치 기구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 주는 관청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재신(중서문하성의 2품 이상 고위 관료)과 추밀(중추원의 2품 이상 고위 관료)이 함께 모여 회의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곳이다.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임시 기구였으나, 고려 후기에 도평의사사(도당)로 개편되면서 구성원이 확대되고 국정 전반에 걸친 중요 사항을 담당하는 최고 정부 기구로 발전하였다.

식목도감은 임시 기구로서 국내 정치에 관한 법의 제정이나 각종 시행 규정을 다루던 회의 기구였다. 이러한 회의 기구의 존재는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① **추밀원**: 중추원의 다른 이름, 고위 관리인(2품 이상)은 추밀이라 하여 군국 기무를 담당하였고, 3품 이하 승선은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다

삼사: 곡식.회계 담당

② **3성 6부**: 발해의 중앙 정치 조직.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의 3성과 충.인.의.지.예.신의 6부를 말함

④ 성균관은 조선의 최고 국립 유학 기관. 소과 합격자들이 학생이다

15.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으로 옳은 것은? [1 점]

신종 원년(1198) 사도 만적 등 6인이 복산에서 나무하다가 공사노비들을 불러 “국가에서 정중부의 반란, 김보당의 반란이 있는 이래로 고관이 천민과 노비에서 많이 나왔다. 장수와 재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으랴.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가 왜 근육과 뼈를 괴롭게 하며 채찍 밑에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모의하였다. 여러 노비가 모두 그렇게 여겼다. 누린 종이 수천 장을 잘라 모두 정(丁)자를 새겨 표지를 삼고…….

〈고려사〉

- ① 문치주의가 심화되면서 국가의 군사력이 약화되었다.
- ② 삼정의 문란으로 기층민의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었다.
- ③ 정중부, 이의민 등이 집권하면서 신분 차별 의식이 약해졌다.
- ④ 서원의 남설과 착취로 지배층과 기층민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 ⑤ 광산 개발과 상업 발달로 국가 운영의 경제적 기반이 변화하였다.

정답: ③

* 만적의 난(1198, 신분해방운동)

무신 정변으로 고려 전기의 신분 제도가 동요되어 하층민에서 권력층이 된 자가 많았다. 한편, 무신들 간의 대립과 지배 체제의 붕괴로 백성들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으며, 무신들의 농장 확대에 인하여 수탈이 강화되었다.

12세기에 가혹한 수탈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은 종래의 소극적 저항에서 벗어나 대규모의 봉기를 일으켰다.

최충헌이 정권을 장악한 뒤에는 회유와 탄압으로 약간 수그러들었다가 만적 등 천민들의 신분 해방 운동이 다시 발생하였다. 만적은 사람이면 누구나 공경대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신분 차별에 항거하였다.

② 조선 말기(19세기) 세도정치 때의 사회상이다.

③ 이의민이 천민(부는 소금장수, 모는 사원 노비 출신)에서 집권자가 된 대표적인 경우이다.

④ 이는 서원 창설은 조선 중기(16세기 후반) 이후이다.

⑤ 광업, 상업의 발달은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

16. ○○○ 답사회의 회원들이 오대산에 있는 다음의 문화재를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 중에서 잘못 설명한 것은? [2 점]



- ① (가)는 삼국 시대에 신라에서 만든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범종이다.
- ② (나)는 문수보살에 의해 세조가 피부병을 치료했다는 설에 따라 만들어졌다.
- ③ (다)는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다각다층 석탑으로 송나라 문화와 연관이 있다.
- ④ (라)는 세조가 상원사 중창을 위해 쌀, 배 등을 하사한 취지를 밝힌 문서이다.
- ⑤ (마)는 훈민정음으로 지은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쳐 세조 때 간행하였다.

정답: ①

* 강원도 오대산의 유적, 유물들

강원도 평창군의 오대산에는 상원사와 월정사가 있다

① **상원사 동종**: 이 종은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범종은 맞지만(725, 성덕대왕 신종:771) 삼국 시대가 아닌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② **상원사 목조 문수동자 좌상**: 세조가 왕위에 오른 직후, 몸에 난 종기를 불력(佛力)을 빌려 고치고자 상원사로 가던 길에, 동자(童子)처럼 생긴 문수보살을 만나 씻은 듯이 나았으므로 그때의 영험을 기리기 위하여 조성하였다는 이야기로 유명하다.

③ **월정사 8각 9층 석탑** : 통일 신라 때의 4각 3층 석탑을 넘어서 다소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다각다층탑이 고려 전기에 유행하는데 그 전형을 보여 준다. 즉 당시 송나라의 선진문물이 수용되며 송나라에서 유행하던 8각탑이 수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상원사 중창 권선문**: 신미(信眉) 등이 상원사(上院寺)를 중수(重修)할 때에 세조가 왕비와 함께 보낸 선을 행하는 취지를 담은 발원문(發願文)이다.

⑤ **월인석보**: 세종이 지은 석가의 공덕을 찬송한 <월인천강지곡>과 수양대군(세조)이 지은 석가의 일대기를 찬술한 <석보상절>을 개고(改稿)해 합편한 책이다. 둘 다 훈민정음으로 지은 것을 합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물 제 74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장처에 따라 일련번호를 정하여 월정사에 소장된 월인석보는 보물 제745-5호이다.

17. 다음은 선생님이 각 모둠별로 부과한 수행 평가 과제이다.
(가) ~ (라)에 알맞은 내용이 연결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점]

| 모둠 | 수행 과제 | 참고 서적 |
|-----|-------|----------|
| 매화 | (가) | 신증동국여지승람 |
| 난초 | (나) | 동국병감 |
| 국화 | (다) | 농가집성 |
| 대나무 | (라) | 존언 |

< 보기 >

- ㄱ. (가) - 경주의 연혁을 삼국 시대부터 조사할 것.
 ㄴ. (나) - 화차와 신기전의 기본 원리를 파악할 것.
 ㄷ. (다) - 15세기 농업 기술 발달 상황을 조사할 것.
 ㄹ. (라) - 양명학의 기본 학설을 요약할 것.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조선 시대 전문 문헌들

(가)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행·윤은보·신공제·홍언필·이사균 등이 증종의 명에 따라 1530년(중종 25)에 <동국여지승람>을 새로 증보하여 만든 조선 전기의 전국지리지(인문지리지). 책머리에 그 도의 전도를 싣고 이어 연혁(沿革)·풍속·묘사(廟社)·능침(陵寢)·궁궐·관부(官府)·학교·토산(土産)·효자·열녀·성곽·산천·누정(樓亭)·사사(寺社)·역원·교량·명현의 사적, 시인의 제영(題詠) 등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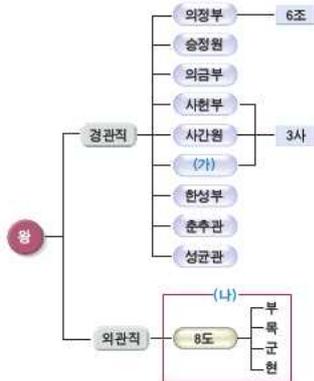
(나) **동국병감**: 조선 문종의 명으로 편찬되고 선조 때 간행된 조선의 전사(戰史). 한무제가 고조선을 침범하여 한사군을 설치하였을 때부터 고려 말 이성계가 여진족 호발도를 물리칠 때까지,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일어난 30여 회에 걸친 전사(戰史)를 기록한 책이다.

(다) **농가집성**: 조선 후기의 문신 신숙이 엮은 농업서적. 1655년(효종 6)에 신숙이 왕명을 받아 간행하였다. 이 책은 《농사직설》, 《금양잡록》, 《사시찬요초》 외에 《구황촬요》까지 합편으로 들어가 있어 당시로서는 최고의 종합 농업서적이라 할 수 있다

(라) **존언**: 조선 후기 학자인 정제두의 양명학의 기본적인 입장과 이론들에 대한 그의 정확한 이해를 담고 있다

㉠ **화차와 신기전에 관한 내용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병기도설(兵器圖說) 편에 실려있다.**

18. 다음 표의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 점]



< 보기 >

- ㄱ. (가) - 종친들을 등용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 ㄴ. (가) - 소속 관원은 모두 경연관을 겸하게 하였다.
- ㄷ. (나) - 외관직은 '부' 단위까지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 ㄹ. (나) - 하부 구조인 촌은 면·이(里)·통으로 편제되었다.
- ㅁ. (나) - 8도에는 행정·사법·군사권을 가지는 관찰사를 파견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정답: ④

* 조선의 통치 기구

(가) **홍문관**: 조선시대에 궁중의 경서·사적

의 관리, 경연, 문헌의 처리 및 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사헌부·사간원과 더불어 이른바 언론 삼사라고 한다. 조선시대 청요직의 상징이다

성종은 **홍문관을 두어** 관원 모두에게 **경연관을 겸하게 함으로써** 집현전을 계승하였으며, 정승을 비롯한 주요 관리도 다수 경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나) **지방관(외관직)**: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고을의 크기에 따라 지방관의 등급을 조정하고(부·목·군·현->부윤·대도호부사·부사·목사·군수·현령·현감), 작은 군현을 통합하여 전국에 약 330여 개의 군현을 두었다. 고려 시대까지 특수 행정 구역이었던 향, 부곡, 소도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켰다.

나아가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하여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 지방의 행정·사법·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관찰사도 동일 기능). 이렇게 수령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향리는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시켰다.

군현 아래에는 면·이(로)·통을 두었다. 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편성하였고, 향민 중에서 각각의 책임자를 선임하여 수령의 명령을 받아 인구 파악과 부역 징발을 주로 담당하게 하였다.

수령의 비행을 견제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기 위하여 **전국 8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였고, 수시로 암행어사를 지방에 보내기도 하였다

㉠ 종친을 등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은 **종친부(宗親府)**이다

19. 다음 자료의 [가]에 알맞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김익희가 상소하였다. “오늘에 와서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정부는 한갓 헛 이름만 지니고 6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하였습니다.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하(判下)나 비빈(妃嬪)을 간백하는 등의 일까지도 모두 여기를 경유하여 나옵니다. 명분이 바르지 못하고 말이 순하지 않음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가]를 혁파하여 정당(政堂)으로 개칭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합니다.”

〈효종실록〉

- < 보 기 > —
- ㄱ. 언관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ㄴ. 세도 정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ㄷ. 봉당 정치의 폐단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 ㄹ. 삼포왜란과 을묘왜변을 계기로 설치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조선 후기 비변사 기능의 변화

조선 후기 봉당 정치가 전개되면서 정치 구조면에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비변사는 16세기 중종 초에 여진족과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 회의 기구로 설치되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구성원이 3 정승을 비롯한 고위 관원으로 확대되었고, 그 기능도 군사 문제뿐 아니라 외교, 재정, 사회, 인사 문제 등 거의 모든 정무를 총괄하였다. 이와 같이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자, 의정부와 6조 중심의 행정 체계는 유명무실해졌다.

㉠ 비변사의 구성원은 임진왜란 이후 전·현직 정승을 비롯하여 공조를 제외한 5조의 판서와 참판, 5군영 대장, 대제학, 사도유수(四都留守) 등 국가의 중요 관원들로 확대되었다. 언관은 대제학 외에 참여치 못하였다

㉡ 세도정치기의 권력 구조에서는 고위직만 정치적 기능을 발휘하고, 그 아래의 관리는 언론 활동 같은 정치적 기능을 거의 잃은 채 행정 실무만 맡게 되었다. 비변사가 핵심적인 정치 기구로 자리잡았으며, 유력한 가문 출신의 몇몇이 실제 권력을 행사하였다.

㉢ 삼포왜란(1510)을 시발로 해서 1517년(중종 12) 6월 비변사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1524년의 여연·무창에 침입한 여진족을 격퇴할 때, 1544년 사랑진왜변이 일어났을 때, 1555년(명종 10) 을묘왜변이 일어났을 때와(비변사 상설화), 기타 변방에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활동하였다.

20. (가), (나)의 두 정치 세력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2점]

| 훈구 (가) | 사림 (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실과 혼인하면서 성장 • 조선의 문물 제도 정비에 기여 • 공신으로서 정치적 실권을 세습적으로 장악 • 관학파의 학풍 계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야의 독서인을 지칭 • 향청을 통해 향촌에서 영향력 행사 • 성리학에 투철한 사족들을 중심으로 성장 • 사장보다 경학을 중시 |

- ① (가)는 군포 징수의 폐단을 개선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 ② (가)는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 ③ (나)의 중앙 진출은 성종의 정치적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④ (나)는 서해안 간척 사업과 토지 매입 등으로 농장을 소유하려고 하였다.
- ⑤ (가)와 (나)는 붕당 정치를 통해 중앙에서의 정권 장악을 도모하였다.

정답: ③

* (가)훈구파와 (나)사림파

15세기 중반 이후, 중소 지주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리학에 투철한 지방 사족이 영남과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을 사림이라 부른다. 이들은 훈구 세력이 중앙 집권 체제를 강조한 데 비해, 향촌 자치를 내세우며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훈구 세력은 15세기 이래의 향상된 농업 생산력과 이를 배경을 발달한 상공업의 이익을 독점하려고 하였다. 서해안의 간척사업과 토지매입을 통하여 농장을 확대하고 대외무역에도 관여하였고 공물의 방납을 통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

향촌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굳히던 사림은 김종직과 그 문인이 성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림 세력을 중용하였기 때문에,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① 연산군 때의 사회를 거쳐 중종 때에 다시 중용된 사림(조광조 등)은 폐폐된 향촌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내수사 장리(長利) 폐지와 방납의 폐단을 주장하였다

⑤ 선조가 즉위하면서 그 동안 향촌에서 세력 기반을 다져 오던 사림 세력이 대거 중앙 정계로 진출하여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림 세력은 척신 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게 되며 붕당 정치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21.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서인은 정책의 수립과 상대 붕당의 탄압 과정에서 노장 세력과 신진 세력 간에 갈등이 깊어지면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다. 이후 노론과 소론은 남인과 정국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였고, 남인이 정계에서 완전히 밀려난 뒤에는 노론과 소론 사이의 대립으로 정국의 반전이 거듭되었다.

- ① 공론을 중시하는 3사와 이조 전랑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 ②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가 강화된 반면 수령권이 약화되었다.
- ③ 사회의 전개로 사람들이 중앙에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되었다.
- ④ 정치적 쟁점은 예문과 같은 성리학적 규범 문제가 주류를 이루었다.
- ⑤ 왕실 외척이나 종실 등 왕과 직결된 집단의 정치적 비중이 커졌다.

정답: ⑤

* 서인의 일당 전제 이후 권력의 독점화 (숙종 후반기 이후 정치적 상황)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은 정책의 수립과 상대 붕당의 탄압 과정에서 노장 세력과 신진 세력 간에 갈등이 깊어지면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다. 이후 노론과 소론은 남인과 정국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였고, 남인이 정계에서 완전히 밀려난 뒤(갑술환국:1694)에는 노론과 소론 사이의 대립으로 정국의 반전이 거듭되었다.

이러한 환국을 왕이 직접 나서서 주도함에 따라 왕실 외척이나 종실 등 왕과 직결된 집단의 정치적 비중이 커졌다. 또한 3사와 이조 전랑은 환국이 거듭되는 동안 기존의 공론이 아닌 자기 당의 이익을 직접 대변하는 역할을 하여 정치적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에 정치 권력이 고위 관원에게 집중되면서 그들의 합좌 기구인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② 향촌 사회에서도 중앙 정계의 동요와 탕평책을 실시하는 왕권의 강화와 그 대행자인 수령권의 강화에 따라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가 어렵게 되고 붕당 정치의 기반도 무너지게 되었다.

③ 사회는 붕당정치보다도 이전의 상황임.

④ 현종 때까지는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과 연합하여 공존하는 구도가 유지된 채 붕당 정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현종 때에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예송이 발생하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었다.

23. A는 이순신이 일본 수군과의 결전을 앞두고 장병들에게 말한 훈시이다. 이 훈시와 관련된 전투를 B의 지도에서 고르면? [2점]

A

병법에 이르기를 “꼭 죽으리라 결심하고 싸우면 살 것이요, 꼭 살리라 마음먹고 싸우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지켜 내면 넉넉히 천 사람도 두렵게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오늘의 우리를 두고 이룬 말이다. 너희들 모든 장병들은 조금이라도 영(勇)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군법으로 다스려 작은 일일지라도 용서치 아니할 것이다.

B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①

*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의 주요 전투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포에서 일본 수군과 첫 해전을 벌여 30여 척을 격파하였다(옥포대첩). 이어 사천에서는 거북선을 처음 사용하여 적선 13척을 격파하였다(사천포해전). 또 당포해전과 1차 당항포해전에서 각각 적선 20척과 26척을 격파하는 등 전공을 세워 자헌대부로 품계가 올라갔다. 같은 해 7월 한산도대첩에서는 적선 70척을 대파(학익진 사용)하는 공을 세워 정헌대부에 올랐다. 또 안골포에서 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 등이 이끄는 일본 수군을 격파하고 (안골포해전), 9월 일본 수군의 근거지인 부산으로 진격하여 적선 100여 척을 무찔렀다(부산포해전).

1593년 장문포해전에서 육군과 합동작전으로 일본군을 격파함으로써 적의 후방을 교란하여 서해안으로 진출하려는 전략에 큰 타격을 가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 이후 모함에 걸려 백의종군하다 다시 통제사로 복귀한 뒤, 12척의 함선과 빈약한 병력을 거느리고 명량에서 333척의 적군과 대결, 31척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었다(명량대첩). 이 승리로 조선은 다시 해상권을 회복하였다.

1598년(선조 31) 2월 고금도(古今島)로 진영을 옮긴 뒤, 11월에 명나라 제독 진린과 연합하여 철수하기 위해 노량에 집결한 일본군과 혼전을 벌이다가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다(노량해전).

보기의 자료는 유명한 必死即生, 必生即死(필사즉생 필생즉사) 이고, 명량(울돌목)대첩과 관련 있는데 이는 오늘날 진도와 해남 사이의 좁은 목이다.

24. 다음 글의 밑줄 친 우리측 요청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태도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1866년에 일어난 병인양요는 통상 수교와 천주교 포교를 둘러싼 조선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으로 알려져 있을 뿐, 그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1970년대에 한국인 서지학자가 프랑스 국립 도서관 별관에서 외규장각 도서를 발견하여 국내에 알리면서, 그 후에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가 한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 사이에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91년에 프랑스 정부에 대해 외규장각 도서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약탈되었음을 근거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 보 기 >
- ㄱ. 외규장각 도서의 약탈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 ㄴ. 경부 고속 철도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반환 의사를 내비치기도 하였다.
 - ㄷ. 병인박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과 없이는 도서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ㄹ. 외규장각 도서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 문화재와 맞바꾸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외규장각 도서

1782년 2월 정조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도서관으로, 왕립 도서관인 규장각의 부속 도서관 역할을 하였다. 설치 이후 왕실이나 국가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의궤(儀軌)를 비롯해 총 1,000여 권의 서적을 보관하였으나, 1866년(고종 3) 병인양요(丙寅洋擾)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습격하면서 일부 서적을 약탈하고, 나머지는 불에 타 없어졌다.

1975년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촉탁 직원으로 일하던 박병선 박사가 도서관에 조선시대의 도서가 보관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목록을 정리하여 그 존재가 알려졌다. 서울대학교는 1991년에 정부에 도서 191종 279권의 반환 추진을 요청하였고 1992년에 정부는 외규장각 도서목록을 프랑스에 전하여 도서 반환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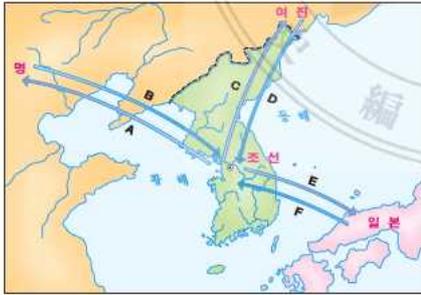
1993년 9월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경부고속철도부설권을 프랑스의 테제베(TGV)가 따 내기 위한 의도로 <휘경원원소도감의궤> 1권을 가지고 와 외규장각 도서 반환의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외규장각 도서는 반환되지 않았고 2000년 10월 다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필사본이 없는 63권을 '대등한 문화재 교환 전시' 형식으로 2001년까지 한국에 반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반환 협상이 연기되거나 프랑스 측에서 계속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 프랑스 정부의 공식적 사과가 아직 없다.

㉡ 병인박해에 대한 한국 측의 사과를 도서 반환의 전제조건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소극적 자세로 반환치 않고 있다

25. 다음은 조선 전기의 대외 교역을 표시한 지도이다. <보기>의 (가)~(라)와 지도의 A~F가 옳게 연결된 것은? [2 점]



< 보 기 >

| | |
|------------|------------|
| (가) 금, 은 | (나) 소금, 곡식 |
| (다) 범종, 불상 | (라) 구리, 유황 |

- | | (가) | (나) | (다) | (라) |
|---|-----|-----|-----|-----|
| ① | A | C | E | F |
| ② | B | E | C | D |
| ③ | B | C | D | A |
| ④ | C | A | B | F |
| ⑤ | D | A | C | E |

정답: ①

* 조선 전기의 무역

대명: 수출품(금, 은, 종이, 붓, 인삼)
수입품(비단, 책, 약재, 문방구)

대여진: 수출품(식량, 농기구, 의복)
수입품(모피, 말)

대일본: 수출품(식량, 의복,)
수입품(구리, 유황)

* 조선 초에는 류큐, 시암, 자와(자바) 등 동남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도 교류하였다. 이들 나라는 조공 또는 진상의 형식으로 기호품을 중심으로 한 각종 토산품을 가져와서 옷, 옷감, 문방구 등을 회사품으로 가져갔다. 특히, 류큐와의 교역이 활발하였는데, 불경, 유교 경전, 범종, 부채 등을 전해 주어 류큐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류큐는 지금은 일본의 오키나와현으로 되어 있지만, 조선 전기에는 일본의 속국이 아니었다. 조선에 조공을 하던 나라이고 임진왜란 이후 일본 막부정권에 점차 예속되다가 1879년 일본에 병합되었다

26. 다음 각 시대의 경제 활동과 연관된 서술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가) 남녀별, 연령별의 정확한 인구와 소, 말, 뽕나무, 호두나무, 잣나무 등의 수를 3년마다 한 번씩 통계를 내어 노동력과 생산 자원을 철저히 편제하여 관리하였다.
- (나) 우경(牛耕)이 일반화되고 가축의 똥거름을 이용한 시비법이 발달하면서 휴경지가 점차 줄어들어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늘었다. 발농사는 2년 3작의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다.
- (다) 관수품을 조달, 공급하도록 종로 대로변에 점포를 지어 시전 상인들에게 대여하고 점포세와 상세를 거두었다. 시전 상인들은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 (라) 대부분의 민간 수공업자들은 그들 자신의 작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인이나 상인들로부터 주문과 함께 자금과 원료를 선대(先貸)받아 제품을 생산하였다.

— < 보기 —

- ㄱ. (가)를 통해 당시 정부에서 지방 말단의 자연 촌락에까지 관리를 파견하여 농민을 통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ㄴ. (나) 시기에 우리 나라 고유의 농법을 소개하기 위해 '농상집요'와 같은 농서가 편찬되었다.
- ㄷ. (다)의 시전 상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경시서를 두고 도량형 검사와 물가 조절을 담당하게 하였다.
- ㄹ. (라)의 결과, 수공업자들이 상인 자본에 지배되거나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각 시대별 경제 상황

(가) **통일신라**: 통일신라는 촌락의 토지 크기, 인구 수, 소와 말의 수, 토산물 등을 파악하는 문서를 만들고, 조세, 공물, 부역 등을 거두었으며, 토착 세력인 촌주를 통하여 매년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3년마다 문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민정문서).

(나) **고려**: 호미와 보습 등 농기구와 종자도 개량되었다.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고 시비법이 발달하면서 휴경지가 점차 줄어들어 계속해서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늘었다. 발농사는 2년 3작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고, 논농사도 고려 말에는 직파법 대신에 이앙법(모내기)이 남부 지방 일부에 보급될 정도로 발전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이암이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를 소개하였고, 문익점은 목화씨를 가져와 목화 재배가 이루어졌다.

(다) **조선 전기**: 조선은 고려보다도 상업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종로 거리에 상점가를 만들었다. 여기에 개경에 있던 시전 상인을 한양으로 이주시켜 장사하게 하는 대신에 점포세와 상세를 거두었다. 시전 상인은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이들 시전 중에서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베, 무명을 파는 점포가 가장 번성하였는데, 후에 이를 육의전이라 하였다. 또, 이들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시서를 두었다.

(라) **조선 후기**: 민간 수공업자들은 대체로 작업장과 자본의 규모가 소규모여서 원료의 구입과 제품의 처분에서 상업 자본의 지배를 받았다. 대부분 공인이나 상인에게 주문을 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선대제가 성행하였다.

27. 다음은 울산 호적을 분석한 표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 점]

(단위: %)

| 시기 | 양반호 | 상민호 | 노비호 |
|------|-------|-------|-------|
| 1729 | 26.29 | 59.78 | 13.93 |
| 1765 | 40.98 | 57.01 | 2.01 |
| 1804 | 53.47 | 45.61 | 0.92 |
| 1867 | 65.48 | 33.96 | 0.56 |

- ① 영조 때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 ② 정조 때 신해통공을 단행하였다.
- ③ 영조 때 노비종모법을 확정하였다.
- ④ 흥선 대원군은 호포제를 실시하였다.
- ⑤ 순조 때 공노비 6만여 명을 해방시켰다.

정답: ②

*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동(양반 수의 증가와 상민 노비의 감소)

부족한 재정 확충책의 일환으로 납속책, 공명첩의 남발과, 농민층들의 (군)역부담 회피를 위한 수단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 합법적인 양반 신분이 가능해지고 연쇄적으로 노비들의 신분상승도 가능해져 양반 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에 상민과 노비 수는 감소하였다.

① 균역의 부담이 과중해지자, 농민은 도망가거나 노비나 양반으로 신분을 바꾸어 균역을 피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이에 균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마침내 균역법이 시행되었다(영조: 1750). 이로부터 농민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② 신해통공은 시전상인 갖고 있던 육의전을 제외한 금난전권(난전: 소규모 사상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을 폐지한 것이므로 신분제 변동과는 관련이 없다(정조: 1791)

③ 노비종모법(모친의 신분으로 친출 자손의 신분을 결정하는 제도)는 결과적으로 노비의 신분상승을 가져왔다(영조: 1731)

④ 흥선대원군 집권기 호포제는 균역의 부담을 양반도 지게 함으로써 줄어든 상민들만의 균역 부담을 분담케 한 제도이다(1871).

⑤ 노비를 해방시켜 상민으로 상승케 하여 역부담을 지워 재정을 확충하려는 교육책이다(1801)

28. 다음은 개항 이후 전개된 민족 운동의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의 근거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 점]

| | 개화 자강 운동 | 위정척사 운동 | 동학 농민 운동 |
|----|-----------------------------------|---------------|----------|
| 주체 | 개화 지식인 | 보수적 유생 | 일반 농민 |
| 성격 | 반봉건적 | 반외세적 | (가) |
| 전개 | 갑신정변 → 갑오개혁 → 독립 협회 활동 → 애국 계몽 운동 | 항일 의병 운동으로 계승 | |

< 보 기 >

ㄱ. 노비 문서는 불태워 버릴 것.
 ㄴ. 왜적과 통하는 자는 엄징할 것.
 ㄷ. 규장각과 혜상공국을 폐지할 것.
 ㄹ. 민법과 형법을 명확하게 제정할 것.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개항 이후 민족운동의 3가지 흐름(개화자강, 위정척사, 동학농민운동) 중 동학농민운동

• **개화 자강 운동:** 주로 지배층 소장 지식인 출신들이 대부분이며, 반봉건과 외세 문물 수용의 입장이다. 갑신정변, 갑오개혁에서는 너무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구하여 아래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지만 독립협회 이후로는 민중을 계몽하고 사회진화론의 입장에서 교육, 문화, 산업으로 힘을 기르자는 실력양성쪽으로 바뀌었다.

• **위정척사 운동:** 보수적 유생들의 위정척사 운동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유지하고 성리학적 전통 사회를 수호하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위정척사 운동은 외세의 침략에 반대하는 반외세, 반침략의 자주적 민족 운동의 성격을 띠었으며 1890년대 이후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의병 운동으로 이어졌다.

• **동학농민운동:** 동학 농민 운동은 안으로는 광범위한 개혁 정책을 요구하고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막으려 하였던 대규모 농민 운동이었다. 동학 농민 운동은 양반 지배층 및 정부와 일본군의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후 농민의 사회 개혁 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농민군의 잔여 세력이 의병 운동에 가담하여 항일 투쟁을 이어나갔다. 나아가 정부가 추진한 근대적 개혁인 갑오개혁에도 영향을 주어 신분 제도와 봉건적 악습의 폐지 등이 실현되었다.

㉠, ㉡은 각각 동학농민운동의 폐정 개혁 12개조의 5조(신분제 폐지: 반봉건)와 10조(척왜: 반외세)의 내용이다

㉢은 갑신정변(1884)의 개혁 정강 14개조의 7조(규장각: 측근 문벌 정치 폐지)와 9조(혜상공국: 보부상 특권 경제 집단 폐지)의 내용이다.

㉣ 이런 내용은 폐정 개혁 12개조에 없다

29. 다음은 조선 후기 봉당의 학풍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연
관된 서술로 타당한 것은? [2 점]

- (가) 조식의 학통을 이었으며, 특히 절의를 중시하여 임진왜란
중에 정인홍, 과제우와 같은 의병장을 많이 배출하였다.
(나) 학문의 본원적 연구를 중시하는 이황의 학통을 내세웠는
데, 정계에서보다는 향촌 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컸다.
(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이이의 정통 학통을 계승하였다고 자
부하였으며, 보수적이고 강경 정책을 취하였다.
(라) 윤증의 학통을 이었으며, 이황의 학설에도 호의를 보이
는가 하면 이이에 대해 비판적이기도 하여 성리학의 이해
에 탄력성을 보여 주었다.

- ① (가)는 실리보다 명분을 중시하여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
하였다.
② (나)는 현종 때 예송 논쟁을 계기로 몰락하여 지방 세력
화되었다.
③ (다) 가운데 일부 학자들이 중농적 실학 사상을 발달시켰다.
④ (라)의 학자 가운데에서 18세기 강화학파가 형성되었다.
⑤ (가)와 (나)는 기호학파에서, (다)와 (라)는 영남학파에서
분화되었다.

정답: ④

* 봉당의 입장

(가) **북인**: 임진왜란 중에 의병을 일으켜 구
국에 앞장섰던 일을 바탕으로 전란 후 정국
을 주도하여 광해군이 즉위함에 따라 이이
첨을 중심으로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고 임
진왜란의 피해를 극복하는 데 많은 성과를
올렸으며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지지하였다
(실리 중시).

(나) **남인**: 이황의 학통을 이은 남인은 성리
철학의 본원적 연구와 주리론을 고수하는
영남 남인과, 독자적 경전 해석(윤휴), 중농
적 실학 연구쪽으로 나아가는 경기 남인(성
호 학파)으로 나눌 수 있다.

현종 때에 예송 논쟁으로 치열하게 서인과
다투었고, 숙종 때 경신환국(1680) 이후 정
계에서 점차 멀어지다 정조 사후(1800) 중
앙 정계에서 완전 축출되었다.

(다) **노론**: 서인 중 남인에 대한 강경노선자
(송시열)들이고 이이의 학설을 절대시하고
조선 사회가 안고 있던 모순을 해결하기 위
해 명분론을 강화하고 성리학을 절대화하였
다.

그러나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
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충청도 노론(호
론)과 같다고 보는 서울, 경기 노론(낙론)
사이의 호락 논쟁이 있었는데 낙론(경화 사
족) 계열은 중상적 실학으로 발전하였다..

(라) **소론**: 서인 중 온건노선자(윤증)들이고
절충적인 성격을 지닌 성혼의 사상을 계승
하고 양명학과 노장 사상 등을 수용하는 등
성리학 이해에 탄력성을 보였다.

18세기 초에 정제두는 몇몇 소론 학자가
명맥을 이어가던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
하여 학파로 발전시켰다(강화 학파). 그는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인정하였으
며, 양반 신분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① 친명배금은 의리와 명분을 강조하는 서
인의 입장

⑤ 북인과 남인은 동인(주로 영남 학파)에
서 갈라졌고, 노론과 소론은 서인(주로 기
호 학파)에서 갈라진 것이다

30. 다음의 글과 도판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점]

200여 년 전 정조대에 건설되어 지금껏 화려하고도 웅장한 자태를 과시하고 있는 화성은 우리 민족 문화의 위대한 금자탑의 하나이다. 정조의 노후 거처로 설계된 대규모 행궁과 이를 옹위하는 화성 성곽, 그리고 서울에 버금가는 대도시를 지향하며 그 자족적 발전을 뒷받침하였던 도시 기반 시설과 생산 기반 시설의 설치, 수준 높은 도시 조경 사업 등은 화성 신도시를 선진적인 꿈의 도시로 탄생시켰다.

〈정조의 화성 건설과 산업 진흥책〉



- ① 화성 신도시 건설은 1789년에 사도 세자의 묘소를 수원부 읍치(邑治)가 있던 화산 아래로 이장하면서 비롯되었다.
- ② 화성 건설 공사에는 경기도의 농민들을 강제로 부역 동원하였으며, 공사가 끝난 후에는 '화성성역의궤'를 편찬하였다.
- ③ 행궁, 향교, 사직단과 장용영의 외영(外營)을 설치하여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남방 요새지의 구실을 하게 하였다.
- ④ 만석거와 대유둔전 등의 모범적인 수리 시설과 국영 농장을 설치하고 대도시의 조성과 상공업 진흥에 노력하였다.
- ⑤ 화성 성역의 건설 사업은 정조 18년(1794) 정월에 시작되어 불과 34개월 만인 정조 20년(1796) 10월에 일단 마무리되었다.

정답: ②

* 정조의 화성 건설

정조는 수원으로 사도 세자의 묘를 옮기고, 화성을 세워 정치적 군사적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공인을 유치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화성 행차 시 일반 백성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이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였다.

수원도호부 자리에 새 원소를 만들어 현릉원(顯隆園)이라 하고 수원부는 화성(華城)을 새로 쌓아 옮기고, 이곳에 행궁과 장용영 외영을 두었다. 화성 현릉원으로 행차할 때는 한강에 배다리(舟橋)를 만들었다

① 화성은 불운하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양주에서 풍수지리학상 명당자리인 화산으로 이전(1789)하고 그 부근 주민들을 팔달산 아래 현재 수원으로 옮기면서 축성되었다.

② 강제노역이 아닌 일군들에게 일상의 품값이 지불되었고, 공사 후 화성성역의궤를 만들어 공사에 관한 모든 내역을 기록하였다.

③ 화성은 수원부으로서 행궁이며 장용영 외영을 두어 군사적 중요성을 두었다

④ 만석거는 1795년 수원 화성을 쌓으면서 인근에 입주한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든 저수지이며, 대유둔전은 국영농장으로서 화성 경비에 충당되었다

⑤ 실학자인 정약용이 성을 설계하고, 거중기 등의 신기재들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완성하였다.

31. 다음은 우리 나라 불교 발전을 시기별로 정리한 표이다.
(가)와 (나) 시기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2 점]

| 676 | | 780 | 936 | | 1170 | | 1270 |
|--------|--------|-------------|--------|--------|------|--|------|
| 화엄종 개창 | (가) | 화엄종, 법상종 유행 | 천태종 개창 | (나) | | | |
| 삼국 통일 | 선덕왕 즉위 | 후삼국 통일 | 무신정변 | 삼별초 항쟁 | | | |

- ① 선종이 발전하였다.
- ② 대규모로 대장경이 조판되었다.
- ③ 교종과 선종의 통합 운동이 추진되었다.
- ④ 불교계의 개혁을 위한 결사가 조직되었다.
- ⑤ 귀족과 왕실을 중심으로 불교가 발전하였다.

정답: ①

* 신라 하대와 무신정권기 불교의 공통점

신라 하대: 혜공왕 사후 진골 귀족의 반란과 이후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 상실로 지방 세력(호족)이 성장하고 사상적으로 중앙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선종. 풍수지리설 등이 등장하였다.

무신 정권(고려 후기): 고려 전기에는 의천의 교종을 중심으로 한 선종 통합운동과 초조대장경, 속장경 조판이 있었고, 무신정권기(고려 후기)에는 불교가 많이 타락하여 결사운동을 통한 불교 정화운동이 있었으며, 특히 지눌은 선종을 중심으로 한 교종 통합을 시도하였으며, 몽고의 침입 때에는 재조대장경 조판이 있었다(1236~1251).

② 신라 말에는 대장경 조판이 없었다. 고려 최우 정권 때에 몽골 침략으로 소실된 초조대장경을 대신하여 교종 때에는 대장경을 다시 만들었다.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16년 만에 이룩한 재조대장경은 팔만대장경이라고도 불리운다

③ 신라 말에는 교선 통합운동이 없었다

④ 신라 말에는 결사 운동이 없었다

⑤ 귀족, 왕족 중심의 불교 발전은 신라 상. 중대와 고려 전기에 해당한다 하겠다.

32. 다음 시기의 의병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점]

항일 의병 투쟁은 1907년 8월, 군대 해산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일제는 헤이그 특사 사건을 구실로 삼아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대한 제국 군대마저 해산시켰다. 해산 조치에 항거하여 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장 박승환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승환의 자결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시위대가 봉기하였다. 이어서 원주, 홍천, 충주, 강화도 등 지방 진위대가 동조하였다. 해산당한 군인들은 의병에 많이 가담하였다. 이에 따라 의병 항쟁은 본격적인 전쟁의 양상을 띠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① 평민 출신 의병장이 다수 등장하였다.
- ② 의병 부대의 계층 구성이 더욱 다양해졌다.
- ③ 의병의 전투력이 이전 시기보다 강화되었다.
- ④ 전국의 의병들이 연합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시도하였다.
- ⑤ 신돌석, 홍범도 등의 주도로 13도 연합 의병이 결성되었다.

정답: ⑤

* 정미의병(1907)

정미의병은 일제의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 시키고 군대해산 한 것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어 일회적인 의병 운동이 아니라 해산된 군인의 합류로 좀더 조직력과 화력이 강화되고 각국 공사관에 의병부대를 국제공법상의 전쟁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격문을 보낼 정도로 조직화 된 의병전쟁이었다.

또한 유생과 농민, 해산 군인뿐 아니라 노동자, 상인, 교사와 학생 등 전 계층이 참여한 전국적인 항일 구국 전쟁이었다.

그러나 유생 의병장들이 중심(신돌석, 홍범도 등의 평민 출신 의병장 배제)으로 13도 연합의병이 결성되어 서울진공작전을 추진 하였으나 지도부(총대장:이인영, 군사장:허위)의 조직력 약화로 실패로 끝났다

⑤ 13도 연합의병은 각 도의 의병장이 전원 양반 유생 출신이라 신돌석, 홍범도 등은 평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등 조직력 결속의 한계가 있었다.

33. 다음은 국권 피탈기를 살았던 어느 인물의 회고이다. 이 인물이 경험할 수 있었던 사실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나는 일제가 만주국이라는 허수아비 국가를 앞세워 만주를 집어삼킬 무렵에 서울에서 태어났단다. 참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지. 지금 초등학교를 그 때에는 소학교라고 했는데, 내가 직접 겪었던 일 한 가지가 기억이 나는구나. 수업 시간 중에 일본인 담임 교사가 나를 불러 내더니 다짜고짜 두들겨 패기 시작하더군. 천황 폐하께 충성을 다하지 않는 놈이라면서 말이야. 난 천황이고 뭐고 본 적도 없는데, 충성 어찌고 하는 그 일본인 선생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 이튿날 어머니가 학교로 불러갔었지. 나중에 들은 얘긴데, 일본인 교사는 내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라고 강요하더라. 할 수 없이 고쳤지. 안 맞고 학교 다니려면 그 수밖에 없었어.

— <보기> —
 가. 학교에서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배웠다.
 나.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6·10 만세 운동에 가담하였다.
 다. 동네 형들이 징용이나 징병으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라. 금속 제품을 모두 공출당하여 나무 그릇에 밥을 담아 먹었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⑤

* 일제 3기(1931~1945)

만주국(1931~1945)과 황국신민화교육, 창씨개명 등을 힌트로 알 수 있다.

1930년대에 일제는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한반도를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로 삼았다. 1940년대에는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

면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 하려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내선 일체의 구호를 내세워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또,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쳐 쓰도록 하고,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궁성 요배, 신사 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징병과 징용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람들을 강제 동원하였다. 전쟁 말기에는 군수 물자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 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를 크게 강화하는 등 전시 동원 체제를 실시하였다. 세금을 늘리고 저축을 강요하여 마련된 자금은 군수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또, 광산이나 군수 공장으로 한국인 노동자를 강제 동원하기도 하였다.

물자 부족이 심화되자 일제는 군수 산업 이외의 기업 활동을 통제하기도 하였으며, 광물 자원의 약탈은 물론 학교의 철문이나 집안의 숟가락까지 강제로 빼앗아 갔다(금속 공출).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경영하던 기업 중에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으며, 징병과 징용으로 끌려간 이들의 빈자리를 메워야 했던 사람도 심한 고통을 겪었다.

㉠ 1930년대 만주 침략 이후에는 한국인을 침략 전쟁의 협조자로 만들려는 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 내선 일체와 일선 동조론을 강조하여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였고, 한국사 왜곡을 심화시켰다.

* 조선어가 필수과목으로 된 것은 2차 조선 교육령 시기(1920년대)

㉡ 6.10만세운동은 1926년이다

34. 다음은 1920년 매일신보에 보도된 기사이다. 이를 통해 대한 독립단의 활동에 관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2 점]

지나 유하현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도총재 박장호, 부총재 조맹선, 총단장 김기한 등이 영술한 독립단은 종래 평안 북도 강안 일대에 출몰 횡행하던 중인데 본년 4월 이래로 그 독립 지단(支團)을 각 도에 설치하고 조선 내지에 있는 청년회를 합하여 전선(全鮮) 일치로 일제히 무력 운동을 일으킬 계획을 하고 이미 평안 남도에서 착수하여 점차로 각 도에 미치고자 하는 것을 동도(同道) 제삼부에서 탐지하고 9월 3일에 간부 이발영 외 16명을 검거하여 무서운 음모를 발견 방지하고, 동월 19일 취조를 마치고 그 사건을 관할 검사국에 보내었다더라.

- ① 중국군과 연합 작전을 수행하였다.
- ② 실력 양성론에 입각하여 활동하였다.
- ③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고 활동하였다.
- ④ 국내 진공 작전을 통하여 일제를 축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 ⑤ 안창호, 이승만 등과도 긴밀한 연락 체계를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정답: ④

* 대한독립단과 서간도 지역

대한독립단(1919~1922): 만주 유하현 삼원보(서간도)에서 결성된 독립운동단체.

3·1운동이 실패하자 만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 박장호·조맹선·백삼규·조병준·전덕원·박양섭 등 각 단체대표와 의병계열의 인사 560여 명이 1919년 4월 15일 분립된 단체를 해체하고 단일 기관으로 대한독립단을 조직하였다.

주된 활동은 압록강을 넘어 수시로 서북 지역 일제 관공서를 습격하고 모군, 모집 활동을 하였다.

대한독립단은 대한제국의 재건을 주장하는 복벽주의 계열의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919년 말경에는 단군기원 또는 대한제국의 연호인 용희를 주장하는 박장호·백삼규·전덕원·이용해·김평식 등의 기원 독립단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호 사용을 주장한 신우현·변창근 등의 민국독립단으로 대립하였다. 1920년 12월에는 한족회·청년 단연합회와 통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광복군 사령부에 통합되고, 1922년 2월 류허현에서 한족회·광한단 등 독립운동 단체들과 회합, 대한통군부를 조직하고 발전적인 해체를 하였다

① 중국군과의 연합 작전은 1930년대 전반의 조선혁명군·한국독립군에서 볼 수 있다

② 이 단체는 관공서 파괴, 모군(募軍)·모금 사업 등의 활동을 하였으므로 실력양성론과는 거리가 멀다

③ 구성원 대다수가 대한제국 재건의 복벽주의이므로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⑤ 안창호·이승만의 미주 지역과는 긴밀한 연락관계가 아니다

35. 다음은 서양인 선교사 마틴이 간도의 용정에서 약 20km 떨어진 장암동과 그 밖의 두 마을을 조사하고 기록한 것이다. 이 글과 관련된 사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점]

촌락은 차례차례 매일 조직적으로 소각당하고 청년들은 사살되었다. 장암동에서는 높이 쌓아올린 곡물에 방화하고 촌민들에게 집 밖으로 나올 것을 명령하였다. 촌민들이 밖으로 나오면 늪은이든 어린이든 눈에 띄는 대로 사살하였다. 총알을 맞고도 죽지 않은 사람은 짚을 덮고 불로 태웠다. 새로 만든 무덤을 세어 보니 31개였다. 다른 두 마을을 방문하였다. 우리들은 불탄 집 19채와 무덤 또는 시체 36구를 목격하였다. 용정에 돌아오니 일본 병사들은 술에 취해 있었다.

- ① 1920년 가을에 일본군은 간도 지방의 동포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마을을 초토화하였다.
- ②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은 간도 침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훈춘 사건을 조작하였다.
- ③ 이 무렵, 만주 지역의 여러 독립군 부대들은 만주와 연해주의 접경 지대에 있는 밀산부로 이동하였다.
- ④ 밀산부에서 대한 독립군단을 결성한 독립군들은 러시아 영토로 넘어가 일본군에 대한 항전을 계속하였다.
- 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 이동휘 등이 중심이 되어 대한 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

정답: ⑤

* 간도참변(1920.10~12)과 북간도 지역

3·1운동을 계기로 만주지방에서는 독립운

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독립군 양성기관이 설립되고 무장한 독립군 부대가 편성되었다. 이들은 여러 번 국경을 넘어 국내로 진공하여 일제의 식민통치기관에 커다란 타격을 가하자, 일제는 위협반회유 반으로 만주의 중국 군벌까지 그들 편으로 끌어들여 합동으로 독립군 토벌작전을 벌였다. 그러나 만주 거주 조선 민중의 은밀한 저항과 중국 군대의 비협조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특히 독립군을 추격하던 일본군이 봉오동전투(1920.6)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은 일제는 정규군 대부대를 만주에 직접 투입하여 일거에 독립군을 소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1920년 10월 일제는 중국 마적을 사주하여 훈춘현 일본 영사관을 고의로 습격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일본군을 대거 만주로 출병시켰다(훈춘사건). 그러나 독립군이 사전에 일본군이 공격해 오기 힘든 산 속으로 유인하여 청산리 전투(1920.10)에서 엄청난 패배를 당하여 오히려 독립군에게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하였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은 한국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작전을 전개하였다(간도참변: 1920.10 ~ 12).

이후 만주(간도)에서의 무장활동이 힘들게 되자 제 독립군 부대들은 서일을 총재로 하여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고 만.소 접경지역인 밀산부로 이동하여 소련령 자유시로 이동하였으나 여기서도 공산당 내부에서의 갈등으로 무장해제 당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낳은 자유시 참변을 맞았다(1921)

⑤ 대한광복군정부(1914)는 이상설이 연해주에서 조직한 정부이다

36. 다음의 (가) ~ (라)는 8·15 광복 이후 우리 나라 현대사의 중요한 고비에서 발표된 글들이다. 발표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점]

- (가) 1) 조선을 독립시키고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가혹한 일본의 조선 통치 잔재를 빨리 청산하기 위해 조선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2) 조선 임시 정부 구성을 위해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한다.
- (나)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 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 (다)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동 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으니, 남쪽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회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 (라) 제1조 -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한다.
제4조 - 주민의 재산권은 이를 존중한다. 주민은 본관의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일상적인 직무에 종사하라.
제5조 - 군정 기간 동안 영어를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 ① (가)-(나)-(다)-(라) ② (나)-(다)-(가)-(라)
③ (다)-(라)-(가)-(나) ④ (라)-(가)-(다)-(나)
⑤ (라)-(나)-(가)-(다)

정답: ④

(가) **모스크바 3상 회의** (1945.12):
5년 기한의 미.영.중.소에 의한 신탁통치 결정.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결의

(나) **삼천만 동포에 읍고함**(1948.2):
유엔의 의한 남한 만의 단독총선에 의한 정부수립이 결정되자 분단을 막기 위해 김구가 천명한 통일정부론. 이후 김구, 김규식 등이 북한의 지도자들과 연석회의를 위해 방북하게 되었다(남북협상: 1948.4).

(다) **정읍 발언**(1946.6):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지지부진하자 이승만이 남한 만의 단독정부 수립의 의견을 처음 개진 한 것.

(라) **맥아더 포고령**(1945.9):
미군이 남한을 직접 통치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포고령

37. 다음 도표와 관련된 시책에 대해 바르게 말한 것은? [1점]



- ① 일제 강점기의 조선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 ② 조선의 부족한 식량은 연해주에서 들어오는 잡곡 등으로 대신하였다.
- ③ 미국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종자 개량, 수리 시설비를 면제하였다.
- ④ 이 시책에 따라 쌀 생산량이 늘어 조선 농민의 생활이 크게 향상되었다.
- ⑤ 1920년대 일본으로의 쌀 반출량이 늘어나 거의 목표량에 가깝게 수탈하였다.

정답: ⑤

* 산미증식계획(1920년대)

일제가 1920년대에 들어서며 급속한 공업화로 상대적으로 농업부문이 약화되자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쌀 증산을 조선에서 증산시켜 수탈하기 위한 계획이다. 목표량에는 미달하였지만 반출목표량은 그대로 달성되어 조선의 식량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1934년 일본의 농업 공황(과잉 공급으로 쌀값 폭락)으로 중단되었으나 1938년 국가총동원 체제 이후 다시 재개되었다.

- ① 일제의 쌀 수탈로 인해 조선의 식량사정은 극도로 악화되어 쌀 소비량이 늘어날 수가 없다.
- ② 조선의 부족한 식량은 만주의 잡곡으로 대신되었다
- ③ 증산에 드는 비용을 전혀 지원치 않고, 지주는 소작농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였다
- ④ 수탈로 인해 악화된 식량사정과 전가된 증산 비용을 통해 대다수 소작농인 농민들의 현실은 극도로 암울하였다
- ⑤ 증산량은 목표량에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탈량(반출량)은 목표량에 거의 가깝게 이루어져 수탈되었다.

38. 다음 자료들과 관계 깊은 외국인이 펼쳤던 활동과 관계가 없는 것은? [2 점]

(가) 한국인들은 타락되고 경멸을 받을 민족이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지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독립 국가로 존속하는 것보다 일본의 통치를 받는 편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미국인들은 여러 번 들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꾸며진 이와 같은 비난에 대해 필자는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특별한 목적은 1905년 11월 17일 밤에 훌륭한 결실을 보았는데, 그 날 밤 한국은 칼로 겨냥된 채 자신의 독립을 결정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이번에만 '자발적으로' 동의하도록 위협을 받았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는 동안 한국이 이토록 위기에 빠지게 된 사건의 추이는 어떠한 것이며, 미국을 포함한 여러 열강들이 그 비극을 연출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대한 제국 멸망사(The Passing of Korea)〉

(나) 서울 양화진의 외국인 묘원에 묻힌 그의 묘비에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 ① 1886년에 한국에 온 뒤 육영 공원에서 교편을 잡았다.
- ② 1900년에 병원 신축을 위해 거액을 기부하여 세브란스 병원이 신축되었다.
- ③ 1901년부터 월간지인 한국평론(The Korea Review)의 편집을 주관하였다.
- ④ 1905년에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개입을 요청하였다.
- ⑤ 1907년에 고종의 밀명을 받아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 가서 한국의 입장을 호소하였다.

정답: ②

* 친한 인사 헐버트(1863 ~ 1949)

버몬트주(州) 뉴헤이번 출생. 1884년 다트먼트대학을 졸업, 그 해 유니언신학교에 들어갔다가 1886년(조선 고종 23) 소학교 교사로 초청을 받고 D.A.빙커 등과 함께 내한(來韓), 육영공원(育英公院)에서 외국어를 가르쳤다. 1905년 을사조약 후 한국의 자주독립을 주장하여, 고종의 밀서를 휴대하고 미국에 돌아가 국무장관과 대통령을 면담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1906년 다시 내한, 《한국평론 The Korea Review》을 통해 일본의 야심과 야만적 탄압행위를 폭로하는 한편, 이듬해(1907) 고종에게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제 2차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내도록 건의하였다. 그는 한국 대표보다 먼저 헤이그에 도착, 《회의시보 Courier de la Conferéce》에 한국 대표단의 호소문을 실게 하는 등 한국의 국권 회복운동에 적극 협력하였다.

1908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에 정착하면서 한국에 관한 글을 썼고, 19년 3·1운동을 지지하는 글을 서재필(徐載弼)이 주관하는 잡지에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49년 국민으로 초대를 받고 내한하였으나, 병사하여 양화진(楊花津) 외국인 묘지에 묻혔다. 저서에 《한국사 The History of Korea》(2권) 《대동기년(大東紀年)》(5권) 《한국건문기 The Passing of Korea》 등이 있다.

② 1900년 미국 클리블랜드의 사업가 L.H. 세브란스가 병원 신축을 위하여 거액을 기부하였다.

39. 다음의 밑줄 친 새로운 기구에서 추진했던 정책과 관련이 없는 것은? [2점]

개항 후 조선은 종전과 달라진 국내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국의 총리아문 제도를 모방하여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그 산하에 사대, 교린, 군무, 변정, 통상 등 12사를 두었다.

- ① 영선사를 청국에 파견하였다.
- ② 박정양을 주미 공사로 파견하였다.
- ③ 신식 근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 ④ 조사 시찰단(신사 유람단)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 ⑤ 종래의 5군영을 무위영·장어영의 두 영으로 개편하였다.

정답: ②

* 개화 정책 추진 기구

통리기무아문: (1880.12~1882.6)

1880년(고종 17) 개항 후의 대외 통상에 대응하여 국가외교·군사제도의 근대적 개혁을 위해 설치한 관청.

사무 분담을 위해 사대사(事大司)·교린사(交隣司)·군무사(軍務司)·변정사(邊政司)·통상사(通商司)·군물사(軍物司)·기계사(機械司)·선함사(船艦司)·기연사(譏沿司)·어학사(語學司)·전선사(典選司)·이용사(理用司) 등 12사를 두었고, 1881년 우선 영선사(領選使)와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을 각각 청과 일본에 파견했고, 별기군(別技軍)을 창설하여 신식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다음 해(1882)에는 미국과의 통상수호조약 체결을 담당하고 무위영(武衛營)·장어영(壯禦營)의 신설 등 군제를 개편했다.

그러나 1882년 6월 임오군란 때 대원군이 재집권하자 삼군부의 부활과 함께 폐지되었다

② 보병사는 1883년에 파견되었으므로 그 전 해(1882)에 폐지된 통리기무아문의 정책이 될 수 없다

40. 다음의 유서를 남기고 순국한 인물의 활동과 그 시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바른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오호라! 나라의 주권이 없어졌으니, 사람의 평등이 없어졌으니, 무릇 모든 교섭에 치욕이 땅극할 따름이라. 진실로 핏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찌 견디어 참으리오? 슬프다! 중사가 장차 무너질 것이요, 온 겨레가 모두 남의 종이 되리로다. 구차히 산다 한들 욕됨만이 더할 따름이라. 이 어찌 죽음보다 나으리오. 뜻을 매듭지은 이 자리에 다시 이를 말 없노라.



—<보기>—

ㄱ. 미국과 영국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을 후원하고 있었다.
 ㄴ. 영국 주재 한국 공사 서리였던 그는 일제의 한국 침략에 맞서 자결하였다.
 ㄷ. 그는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자 이에 항거하여 순국하였다.
 ㄹ. 대한 제국 정부는 그의 절의를 특별히 기리어 그를 장충단에 배향하게 하였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②

* 을사조약 때의 순국인사 이한응에 대하여

이한응(1874. 9. 21 ~1905. 5. 12)
 한말의 외교관. 영국·벨기에 주차공사관 3등 참서관, 통정대부, 서리공사가 되었다. 제1차 한일협약이 맺어지고 대외적으로는 영·일 동맹으로 한국 정부의 지위가 떨어지자 이를 개탄, 음독자살하였다. 장충단에 배향되었다.



- ㉠ 러일전쟁(1904~1905) 중 미국과 영국은 일본을 후원하였다
- ㉡ 1904년 주영공사 민영돈의 귀국으로 서리공사(署理公使)가 되었다.
- ㉢ 을사조약(1905년 11월 17일) 이전에 순국했다
- ㉣ 고종의 특명으로 시신이 국내로 옮겨져 용인에 안장되고, 내부협판(內部協辦)에 추증되었다. 장충단(獎忠壇)에 배향되었다

41. 다음 글의 ㉠과 ㉡에 해당하는 책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2점]

1866년 봄에 평안도 관찰사에 임명된 박규수는 그 해 여름에 대동강을 불법 침입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평양에서 격침시킨 후, 그 배의 잔해 부품들을 수거하여 서울로 보냈다. 이것을 받은 흥선 대원군은 기술자 김기두를 시켜 서양 증기선의 실험을 하게 하였다. 박제경(박제형이라고도함)이 쓴 (㉠)에는 이러한 서양 증기선의 실험 사실이 실려 있는데, 흥선 대원군은 중국에서 들어온 (㉡)에 의거하여, 서양 증기선의 원리를 본떠서 철선을 재조하고 목탄으로 증기 기관을 작동시켜 기계 바퀴를 돌리는 실험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철선은 선체가 너무 크고 무거운데다 증기력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 | | |
|--------------|--------|
| ㉠ | ㉡ |
| ① 근세 조선정감 | 해국도지 |
| ② 대한계년사 | 영환지략 |
| ③ 한미 관계 50년사 | 사고전서 |
| ④ 오하기문 | 조선책략 |
| ⑤ 근대 한미 교섭사 | 고금도서집성 |

정답: ①

* 흥선대원군의 통치기간과 서양문물 관련 서적(근세조선정감, 해국도지)

㉠ **근세 조선정감**: 조선 고종 때 박제형(朴齊炯)이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섭정(攝政)을 중심으로 기술한 야사서(野史書)

㉡ **해국도지**: 중국 청(淸)나라 때 위원(魏源:1794~1856)이 지은 세계지리서. 내용은 세계 각국의 지세(地勢)·산업·인구·정치·종교 등 다방면에 걸쳐 서술되어 있고 그 중에는 전함조의(戰艦條議)·화기화공조의(火器火攻條議)·기예화폐(器藝貨幣) 등에서 서양문물이 잘 설명되어 있다

② **대한계년사**: 정교(鄭喬:1856~1925)가 1864년(고종 1)부터 1910년 대한제국(大韓帝國)이 망할 때까지 47년간의 역사를 강목체(綱目體)로 기술한 책.

영환지략: 중국 청나라의 서계여(徐繼畬)가 지은 세계 지리 책으로 1848년에 완성하여 1850년에 간행하였다 중국을 왕래하던 초기 개화파 오경석이 해국도지와 함께 들러온 지리서로 근대개화 사상에 큰 영향을 준 대표적인 책이다

③ **한미관계 50년사**: 문일평이 쓴 외교 관계사인데 문일평이 탄생(1888) 이전이므로 틀린 진술이다

사고전서: 중국 청(淸)나라 때(건륭제: 18세기 후반) 편집된 총서.

④ **오하기문**: 매천 황현이 19세기 당쟁, 세도정치의 폐해, 동학농민전쟁, 일제 침략과 항일의병활동 등 한 시대를 잘 묘사함.

⑤ **고금도서집성**: 중국 청 강희제(17세기 후반~18세기 초) 때 집성된 대형 분류백과서

42.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4·19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민주 발전 및 국민 화합에 기여하자."며 4·19 묘지의 성역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 종전의 묘역보다 3배 규모인 41,100여 평으로 확장되고, 국립 묘지로 승격되어 그 관리 업무가 국가 보훈처로 이전되었다.
- 잔디 광장, 연못, 산책로, 다목적 광장 등이 새로 조성되고 4·19 혁명 기념관도 건립되었다.



- ① 독립 기념관과 예술의 전당 등의 건물을 건립하였다.
- ②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위를 선양하였다.
- ③ 서방 선진국들의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④ 경제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
- ⑤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고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정답: ③

* 4.19기념공원 건립과 김영삼 정권 (1993~1998): 문민정부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제, 금융 실명제 등을 실시하였다. 지방 자치제를 전면 실시하였으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며 전두환, 노태우 등을 반란 및 내란죄 혐의로 구속하였다. 그리고 군부 내의 정치군인들을 제거하여 군부의 정치 개입을 엄단하였다.

1996년에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지만, 1997년에 경제 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IMF)의 긴급 금융 지원을 받게 되었다.

① 전두환 정권(1981~1988)기에 독립기념관(1982), 예술의 전당(1982년부터 추진되어 198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립) 건립되었다.

② 88올림픽은 노태우 정권(1988~1993) 때에 개최되었다.

④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 정권기(1963~1979)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르는 말이다.

⑤ 김대중 정권(1998~2003) 때에 남북 정상회담(2000.6.13)과 6.15 공동선언이 있었다(2000.6.15)

43. 1945년 12월에 열린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 < 보 기 —
- ㄱ. 최고 5개년에 걸친 한국 신탁 통치 문제를 미·소·영·중의 공동 심의에서 다룬다.
 - ㄴ. 한국민의 노예적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절차를 거쳐 한국을 자주 독립시킨다.
 - ㄷ. 한국을 독립 국가로 재건하고 민주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 ㄹ. 한국이 일본의 통제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획득하도록 신탁 통치 이전에 한시적으로 민정을 실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모스크바 3상회의(1945.12)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4개국 대표에 의한 신탁통치를 기본 취지로 하는 미국측의 제안과 민주주의적 임시정부 수립을 기본 취지로 하는 소련측의 수정안이 토론되었다. 회의 결과 12월 28일 영국의 동의로 협정이 체결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표되었다.

첫째,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발전시키고, 일본 통치의 잔해를 빨리 청산할 조건들을 조성할 목적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둘째, 연합국이 한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원조·협력할 방안의 작성은 민주주의적 정당·사회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미소공동위원회가 수행한다.

셋째,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4대 강국(미·소·영·중)에 의한 신탁통치의 협정은 한국 임시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4개국이 심의한 후 제출한다.

이 협정내용에 대해 충청 임시정부의 추대를 주장하던 한국독립당·한국민주당 등의 우익세력은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국제적 원조방안으로 선전하면서 신탁반대운동을 전개했다. 반면에 여운형의 조선인민당,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등은 3상회의의 결의를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국제적 합의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좌우익의 대립에 미국·소련의 대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통일임시정부의 수립이라는 3상회의의 결정사항은 실현되지 못했다.

- ㉠ 카이로회담(1943)
㉡ 이런 내용의 회담은 없다

44.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신라의 인물을 쓰시오. [2 점]

- 8세기 초 성덕왕 때 한산주 총관을 지냈다.
- 그는 신라 중대의 뛰어난 문장가로서 신라 역사상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 '계림잡전', 화랑들의 전기를 모은 '화랑세기', 한산 지방의 지리지인 '한산지', 고승들의 전기를 모은 '고승전' 등을 저술하였다.

* 통일신라기 김대문의 주체적 역사 인식

삼국 통일 이후, 신라의 대표적 문장가인 김대문은 화랑의 전기를 모은 화랑세기, 유명한 승려의 전기를 모은 고승전, 한산주 지방의 지리지인 한산지 등을 지었다.

이와 같은 저술은 신라 중대의 문화 수준이 단순히 중국 것을 모방한 단계를 벗어나 신라의 독특한 문화전통과 생활경험을 토대로 하는 데까지 나아갔음을 보여준다. 신라의 불교는 원효·원측·의상을 거치면서 독자적인 철학체계를 수립하였고, 아울러 유학도 통일기 이후 강수·설총 등을 거치면서 정치이념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신라인으로 하여금 문화형성에 대한 자신을 갖게 하였다. 김대문은 이 같은 신라의 문화적 능력에 대한 신뢰와 전통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자기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함으로써 통일신라 문화의 토대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김대문은 진골귀족 출신으로 진골귀족의 입장을 대변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왕권이 진제주의를 공고히 하면서, 진골귀족을 억압하는 대신, 유교를 중심으로 한 육두품 세력을 키운 배경과 관련이 있다.

4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역사 기록물의 명칭을 쓰시오. [2점]

-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조선 시대의 시대상을 꼼꼼하게 기록한 1차 사료이며, 3천 2백여 권, 2억 4천여 만 자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로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대 기록물이다.
- 인조대부터 순종대까지 280여 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자료가 남아 있으며, 인조 이전의 자료는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으로 소실되었다.

* 조선왕조실록의 사초(史草) 중 승정원 일기

승정원 일기: 조선시대에 왕명 출납을 관장 하던 승정원에서 매일매일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 일기.

조선 개국 초부터 일기가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에 소실되어 1623년(인조 1)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270여 년간의 일기만이 현존한다.

조선시대의 최고 기밀기록이며, <비변사등록>, <일성록> 등과 더불어 국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이며, 2001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46. 다음 자료의 밑줄 친 (가) 토지 제도의 명칭과 (나) 조세 징수의 한도를 5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3점]

삼국 말기에는 경계가 정확하지 못하고 세금도 표준이 없었다. (가) 고려 태조가 즉위하자 우선 토지 제도를 개정하고, (나) 백성들에게 거두어들이는 한도를 정하였다. …… 광종은 주와 현의 공부(貢賦)를 제정하였고, 경종은 전시과(田柴科) 제도를 세웠다. 성종, 현종이 왕위를 계승하여 법제는 더욱 구체화되었다.

<고려사>

* 고려 태조의 역분전(공신) 지급과 취민 유도(농민 조세경감)

역분전 (940년): 후삼국 통일의 논공행상적 토지급여로 공역자의 관계를 논하지 않고 인품이나 공로의 대소에 따라 토지 수조지를 차등 있게 지급한 것이었으나, 지역 단위가 아니라 좀 더 세분된 농지면적 단위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경종 대에 처음 실시되는 전시과 제도의 선구가 되었다. 전결(田結) 단위로 지급하였다.

취민유도: 왕위에 오른 뒤 태조는 호족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율을 10분의 1로 낮추어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47. 다음 규약이 향촌 사회에 널리 보급되면서 나타난 현상을 5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3점]

- 모든 상가에 상을 차려 놓고 음주하는 것을 금한다. 소를 도살하는 것을 금한다. 시비를 가리기 힘들면 회원인 선비들이 모여 결정한다.
- 동네에 상사(喪事)가 있으면 동네 사람들은 각자 쌀 1되와 가마니 한 장씩을 낸다. 장례 때에는 각 집마다 장정 1명씩 내어 일을 돕고, 장정을 보내지 않은 사람은 쌀 1되씩을 낸다.

* 조선 중기(16세기) 향약의 보급

지방 사족은 향촌 사회를 그들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향약 조직을 만들었다. 향약은 종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본래 향촌에서는 마을 단위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 풍습이 있었다. 향약은 이러한 전통적 공동 조직과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유교 윤리를 가미하여 교화 및 질서 유지에 알맞게 구성한 것이다.

향약은 조선 사회의 풍속 교화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향촌 사회의 질서 유지와 함께 치안까지 담당하는 등 향촌의 자치 기능을 맡았다. 향약의 보급으로 지방 사림의 지위는 강화되었으나, 지방 유력자가 주민을 위협, 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48. 조선 정부가 다음과 같은 문서를 대량으로 발급하게 된 배경과 이것이 이후 사회에 미친 영향을 2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4점]



* 조선 후기 공명첩의 발급과 신분제의 동요

①공명첩은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돈이나 곡식을 받고 팔았던 명예직 임명장이다. ②임진왜란 이후 심각해진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대량으로 발급하였다. 공명첩을 받은 사람은 양반이 될 수 있었다. ③따라서 양반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양반층 내부에서 별열, 향반, 잔반 등으로 분화가 이루어졌다. ④결과적으로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의 한 원인이 되었다.

49. 다음 자료의 제도를 시행한 배경과 목적을 2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4 점]

태조 18년 신라왕 김부가 내항하여 오니 신라국을 없애고 경주라 하였다. (김)부로 하여금 본주의 사심(事審)이 되어 부호장(副戶長) 이하직(以下職) 등의 일을 맡게 하였다. 이에 모든 공신이 이를 본받아 각기 본주의 사심이 되었다. 사심관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고려사〉

* 고려 초 태조의 사심관제도의 실시 배경과 목적

사심관 제도: 태조는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심관과 기인 제도를 활용하였다.

실시 배경: 고려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할 무렵 지방은 여전히 호족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으며, 중앙에서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목적: 태조는 지방 세력가들을 회유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사심관 제도를 시행하였다. 즉, 중앙의 공신이나 고관들을 출신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해당 지역의 부호장 이하 향직을 관할하게 하였다.

50. 조선 후기 수취 제도의 개편에 대하여 다음 순서에 따라 5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5점]

- 수취 제도 개편의 배경
- 영정법 실시
- 대동법 실시의 주요 내용
- 대동법 실시 결과와 영향
- 균역법 실시의 주요 내용

* 조선 후기 수취체제의 개편

• 양난을 거치면서 농촌 사회는 피폐되고 농민의 불만은 고조되어 갔다. 정부는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 기반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수취 제도를 개편해야만 하였다.

• 전세는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킨 영정법을 실시하였으나 농민 부담을 줄이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 공납은 특산물의 현물 납부를 전세화한 대동법으로 개편되었는데, 이는 토지 1결당 대체로 미곡 12두를 납부하게 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무명이나 동전 등으로도 내게 하였다.

• 대동법의 실시로 농민의 부담이 경감되어 민생 안정에 이바지 하였으며, 공인의 활동으로 상업과 수공업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에도 영향을 주었다.

• 군포 징수는 농민 장정에게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게 한 균역법으로 개편되었으며 이 법의 실시로 농민 부담을 줄여 일시적이거나 민생 안정에 이바지하였다.